제주 아동학대 행위자 10명 중 8명 '부모'

작년 112신고 675건·의심사례 1066건 전년 比 40%↑
"피해아동 보호 위해 의료·지역사회 간 협력 강화를"

제주지역에서 관계성범죄에 속하는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10건 중 8건은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아동학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제주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는 675건으로, 전년(480건)보다 40.6%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101건으로, 전국 평균(71건)을 웃돌았으며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도내 아동학대 의심신고도 지난해 1066건으로 전년(779건)보다 36.8% 늘었다. 이 가운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37건(22.2%)이었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 사례 237건 가운데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192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이어 낯선 사람 26건(11%), 대리양육자 17건(7%), 친인척 3건(1%) 순이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국가아동관리보장원이 주최하고 제주대학교병원이 주관한 '2026년 제주·전라권역 새싹지킴이병원 사례 세미나'에 참여한 도내 의료진과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도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기관별 역할과 현장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함께했다.

고권휘 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인구 대비 아동학대 112 신고건수의 경우 제주는 지난해 전국 3위로 여전히 높다"며 "국가기관, 지자체, 병원, 보호전문기관, 외국인지원기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제주보완관시스템(JSS)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윤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도 "지난해 아동학대 판단건수 중 81%가 부모가 가해자였다"며 "가정별 상황에 맞는 개입·보호 모형을 구축해 '방문똑똑! 마음톡톡!'이라는 방문형 가정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양육방법 실천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현식 제주대학교병원 아동보호위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은 "도내 한 심각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위원회가 적극 개입해 정신건강의학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안과·신경외과 등 다학제 의료체계가 연결됐다"며 "지자체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등 지역사회 지원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치료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유명 고깃집 50대 업주 사기 혐의 고소장

경찰, 경위 등 조사 방침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내 유명 고깃집 업주인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최근 접수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도내 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지인에게 1억5000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에 이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이 1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A씨가 직원들의 임금과 납품업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도 나오면서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져 추가 고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A씨는 현재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소정기자

'텀블러 체액 테러' 고교생 성범죄 혐의 추가

경찰, 10대 A군 공소청 송치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 테러를 한 고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성범죄 혐의를 추가해 공소청에 넘겼다.

서귀포경찰서는 건조물침입·재물손괴·강제추행 미수·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고교생 10대 A군을 최근 제주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몰래 침입해 여교사 B씨가 사용하는 텀블러에 자기 체액을 묻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4일 오후 9시 40분쯤 다시 같은 초등학교의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수사를 벌여왔다.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 '성적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 7월 여성 카페 업주의 음료에 몰래 자신의 체액을 넣어 이를 마시게 한 행위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물리적인 힘)의 행사로 보고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법리 검토한 후에 A군에 대해 강제추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A군이 두 차례 같은 특정한 장소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군은 강제추행 미수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소정기자

자동차정비업체 집중 소방검사

소방안전본부, 95곳 대상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화재예방과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금·도장·세척 공정을 운영하는 도내 자동차정비업체 9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타 시·도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료·신나 등 인화성 물질의 무허가 저장·취급 실태를 확인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동차 판금·도장·세척 작업에 사용되는 도료와 신나 등은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저장·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가 정전기나 불꽃 등 점화원에 노출되면 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검사 내용은 도료·신나 등 사용 물질의 위험물 해당 여부, 위험물의 품명·수량 및 보관장소 확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무허가 저장·취급 여부, 허가·신고사항과 실제 저장·취급 현황의 일치 여부 등이다. 박소정기자



위험천만… 사거리 교통사고 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검문소 사거리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강경민 사진작가

"특수교육실무사 수당 지역 차별 안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 공동행동

제주를 포함한 전국 특수교육실무사들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특수교육지원수당'의 통일을 촉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는 4일 공동행동 입장문을 내고 "지역차별 없는 평등한 처우를 보장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현재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실무사는 모두 200여 명으로, 이들은 올해 3월부터 특수교육지원수당 2만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국 단위 집단임금교섭에서 수당이 신설된 결과인데, 일부 지역에선 월 5만원을 적용하는 등 전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특수분과는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없듯, 이를 지원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처우 역시 지역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특수교육지원수당을 월 5만원으로 상향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김지은기자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914건 실태조사

제주시, 보조사업 불일치·농약 구매내역 부재 등 대상

제주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조사업 불일치, 농약 구매내역 부재, 면세유 대장 미등재 등의 사유에 따른 조치다.

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농사를 짓는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직불금 지급 대상자별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최근 2년간(2024~2025)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과 2026년 공익직불금 등록자 등 총 914명(건)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주요 조사 사유는 보조사업 불일치(재배보험, 친환경 및 GAP 인증) 817건, 농약 구매내역 없음 66건, 면세유 대장 미등재 78건 등이다.

조사는 공익직불금 등록 대상 읍·면·동에서 대상자별 조사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백금탁기자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 장원농장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큘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큘고리
큘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큘고리'가 있습니다!

큘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큘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큘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큘고리 작업세트 구성
8.5cm 큘고리 + 3cm 안파고정판 + 폭 5.5mm 안파밴드 = 큘고리 작업세트

큘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큘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